

## “휠체어는 지나가기 힘들어요” 장애인 배려 없는 버스정류장

각종 시설물로 이동로·시야 막혀 교통약자 불편 호소  
버스기사 불친절도 '불만'...인식개선 등 대책마련 절실

“버스에서는 내렸는데 정류장 기둥 사이가 너무 좁고 무단횡단 막느라 설치한 울타리 때문에 휠체어가 지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1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과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이동로 확보와 시야개선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시는 2004년부터 장애인들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이에 비해 버스정류장의 시설개선은 요원하다는 교통약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원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주로 버스를 이용하지만 정류장에 불법주정차 차량들과 시야를 가리는 각종 시설물 등 탑승조차 쉽지 않아 장애인들은 버스를 통해 이동하기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있는 김 모씨는 “앞아서 생활하는 우리는 시야가 좁아 오는 버스를 확인하기 힘든데, 정류장에 불법주정차 해놓은 차량 때문에 버스를 놓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박 모씨는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들의 이동여건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류장 시설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부분 버스정류장은 시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긴 의자가 정류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류장 기둥 사이가 좁고 바람막이구조물과 기둥 밑 주춧돌, 뒷면마저 통유리로 제작돼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곳도 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정류장을 지나 인도에 근접한 곳에서 승·하차 하



지난 5일 광주 남구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버스정류장 인근의 기둥과 전봇대, 후면 바람막이, 긴 의자 등의 시설물들로 인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이 어렵다.

는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미관을 위해 둘러놓은 울타리에 막혀 버스를 잡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도와 이어지는 턱이 높고 인도 경사면이 가팔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서 있기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불친절 또한 빼놓지 못된다.

중증장애인 최 모씨는 “친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오르내릴 때 그저 손짓만 하며 카드먼저 찍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간혹 어떤 기사님들은 짜증을 내며 다음버스를 기다리라고 호통을 치시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 최민호씨는 “중증 장애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저상버스 도입

과 더불어 시와 유관기관이 조금 더 교통약자들을 배려해주길 바란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고령인구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을 위한 대기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조금 더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원희기자

## 고흥 죽산재, 전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고흥 죽산재, 전남도 지정문화재 고시. (사진=고흥군청 제공)

고흥군의 전통가옥 죽산재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293호)로 지정·고시됐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 동강면 서민호길 33-5에 소재하고 있는 죽산재는 2020년 12월 24일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고흥군의 49번째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로 기록됐다.

이 건물은 1933년 죽파 서화일

49번째 전남도 지정문화재 고시  
1933년 상량 근대기 목조건축물  
부재 기법 정교하고 화려한 편

(1860~1933)선생이 서재로 쓰고자 짓기 시작했으나, 죽파선생이 준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월파 서민호(1903~1974)선생이 완공했다. 아버지인 죽파선생의제실과 자신의 서재로 사용했다.

죽산재 건립연대는 2013년 수리공사 당시 발견된 상량문(송병섭 찬)을 통해 1933년에 상량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3칸, 'ㄷ'자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단이나 초석을 잘 다듬어 품격을 높인 근대기의 목조건축물이다.

건축적으로 부재의 기법이 정교하고 화려한 편이다. 불교적 요소와 근대기의 풍물이나

경관이 잘 표현된 민화풍의 해학적인 단청은 여러 문화가 혼합돼 나타나는 사례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죽산재는 지역의 문화유산이 소실돼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지역민들과 서민호 선생의 후손에 의해 2010년 8월 자연환경 국민신탁에 기증돼 관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탁에 기증된 죽산재를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2017년부터 분주히 뛰어다녔다”면서 “죽산재의 건축적 가치뿐 아니라 인물,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 관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파 서민호(1903~1974) 선생은 고흥 출신으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년간 복역했다. 1946년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 1952년 거창양민학살사건 국회 조사단장, 1961년 UN 총회 한국 대표,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의원직 사퇴, 1971년 통일문제연구소 개설, 1973년 정계 은퇴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1974년 사망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광주시, '공무원 투기성 거래' 전수조사한다

정부 합동조사 별개 산정지구 불법 투기행위 확인...첨단3지구도 조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광주시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기성 거래 전수조사가 나시고, 인공지능(AI)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3지구로 조사 대상도 확대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지난달 24일 정부가 신규 공급택지지구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가 있는지 전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공직자들이다. 특히 업무 직접 관련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투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는 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내역을 건건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과 등과 관할 자

치구인 광산구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도 AI 집적단지가 들어설 광산구 첨단3지구 364만㎡(110만평)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투기성 매매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자체 조사중이다.

이 시장은 “현재까지 ‘발견된’ 투기이후에 없었어도 전수조사기로 한 것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시민들의 우려 불식과 향후 예방 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으로 조사 확대 여부는 산정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해 판단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원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라인

#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기찬영암 ONTACT

- 유튜버와 떠나는 3인 3색 랜선 영암여행
- 기찬영암 브이로그
-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 혜택 가득! 기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 온라인 영암 마켓
-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 온택트 개막콘서트
-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 온택트 폐막행사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집콕놀이! 왕인키트  
·집콕! 챌린지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영암군 주관 | 영암군항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문의전화 | 061-470-2347